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방안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Social Integration Plan in the Multicultural Society

-Review of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of Intercultural Education Utilizing Digital Image Media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김형민¹

Hyeong Min Kim¹

요약

본 논문은 대표적인 디지털 영상매체 중의 하나인 영화를 활용하여 대학생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앞서, 본 논문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1) 다인종·다문화에 관한 인지도, (2) 한국사회를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바라보는 인식도, (3)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7)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 (8)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교류 여부, (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핵심어 : 교수-학습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다문화사회, 디지털 영상매체, 디지털혁명, 사회통합, 상호문화교육

Abstract

Before developing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s of intercultural education for undergraduates utilizing movies as one of the most typical digital image media in modern times, we carried out a survey targeting university students and regular adults. The content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1) recognition degree of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2) perception degree of Korean society as multi-racial and multi-cultural society, (3) multi-cultural socialization of Korea, (4) information sources of multi-culture, (5) needs of intercultural education, (6) subjects and content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7) bias degree towards people with backgrounds of other cultures, (8) direct interaction with people who have backgrounds of other cultures, (9) effective teaching and learning medium of intercultural education, (10) needs of bringing up expert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Through the analysis result of the

¹ Department of German Language and Literature, Sogang Univ., 35 Baekbeom-ro, Mapo-gu, Seoul, 121-742, Korea
e-mail : kimhyeongmin@hotmail.com

Received(August 06.2014), Review (August 21.2014), Accepted(December 31.2014)

survey, we tried to emphasize the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of intercultural education utilizing digital image media.

Keyword : teaching and learning program,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digital image media, digital revolution, intercultural education, social integration

1. 들어가는 말

단일민족·단일문화를 자부해 왔던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다인종·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 정보와 지식 교류의 확대, 국가와 국가 사이 그리고 문화와 문화 사이의 인적·물적 교류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로의 급변하는 사회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여 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1]. 학계는 학계대로 국내로 유입하는 외국인 이주자의 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걸맞은 학문적 대책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고민해왔다. 그러나 일선 교육기관, 즉 유아교육기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또는 경험하게 될) 다양한 민족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의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을 이룩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된다[1-3]. 특히 다인종·다문화로 인한 사회·문화적 갈등을 줄이거나 해소하기 위한, 또는 그런 갈등 자체를 가급적이면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평가된다. 한편 이미 개발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도, 교수·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수·학습 매체의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기 그지없다[4-6].

2.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

‘세계화(globalization)’ 또는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현대사회에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되었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는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이유로 국경이란 경계를 허무는 국제 이민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다양성이 공존하는 사회가 세계 곳곳에서 출현하고 있다. 그런 사회에서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차이(cultural difference)’로 인한 크고 작은 사회갈등(social conflict)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다름’과 ‘낯설’을 수용하여 문화긴장(cultural tension)과 문화갈등(cultural conflict)을 극복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해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 노력은 이제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에 관련된 담론이 사회의 각계각층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때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이 교육의 중요성이다. 지구촌(global village) 시대에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회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다문화사회에서 타자를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하고, 조화롭고 평화로운 공생과 상호발전을 추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룩하려는 교육이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과 ‘상호문화교육(intercultural education)’이다. 이런 맥락에서 바라보면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은 근본적인 목표설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명사형 ‘다문화(multi-culture)’와 ‘상호문화(inter-culture)’ 그리고 해당 명사의 형용사형 ‘다문화적(multi-cultural)’과 ‘상호문화적(intercultural)’이라는 용어가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유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7][8]. 그러나 학술적 논의에서 해당 용어를 사용할 때 구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 이유는 용어 자체가 함의하는 내용에서 분명한 차이점을 드러내기 때문이다[9][10].

‘Interkulturell’ ist nicht bedeutungsgleich mit ‘multikulturell’. Die interkulturelle Option ist durch das Bestreben gekennzeichnet, die verschiedenen Kulturen aufeinander zu beziehen, und eben nicht durch die bloße Steuerung und Kontrolle des Nebeneinander[11].
‘상호문화적’이란 용어의 의미는 ‘다문화적’이란 용어와 의미와 동일하지 않다. 상호문화의 선택은 서로 다른 문화들을 서로 연관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상호문화란 서로 다른 문화들이 단순히 공존하도록 조정하고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두 쌍의 용어 사용과 관련하여 ‘다문화’와 ‘다문화적’이란 용어는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한 북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영어권에서, ‘상호문화’와 ‘상호문화적’이란 용어는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언어권에서 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용어는 국가 내지 지역에 따른 단순한 변이형이 아니라, 해당 국가 내지 지역의 사회·문화·역사적 배경과 철학적 성찰을 반영하고 있다[12][13].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들이 병존하거나 공존하는 사회구조의 현상을 표현하는 것이라면, ‘상호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이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문화와 문화 사이의 역동적인 쌍방향성이라는 상호작용을 가리킨다[14-16]. 따라서 ‘다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상호문화’는 문화와 문화의 만남 속에서 문화상호 간의 대화와 교류를 강조한다[17].

‘Interkulturell’ ist etwas, dass sich zwischen unterschiedlichen Lebenswelten ereignet oder abspielt. Eine ‘Interkultur’ ist dann die Bezeichnung dieses Sich-Ereignens. [...] Interkulturen entstehen folglich dann, wenn Mitglieder unterschiedlicher Lebenswelten A und B miteinander interagieren, gemeinschaftlich handeln[18].
‘상호문화적’이란 서로 구별되는 여러 생활세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그래서 ‘상호문화’는 이런 생겨남의 명칭이다. [...] 상호문화는 서로 구별되는 생활세계 A와 B의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행동을 한다면 생겨난다.

상호문화는 서로 구별되는 문화권에 속한 개인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생겨난다. 따라서 상호문화적 접근에서 중시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 의해 발생하는 상호관계성이다. 이렇게 생겨난 상호문화는 만남 이전에 존재했던 두 문화와 구별되는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화인 것이다.

[...] existieren Interkulturen auch nur in Abhängigkeit von den daran Beteiligten. [...] Interkulturen werden permanent neu erzeugt, und zwar im Sinne eines 'Dritten', einer Zwischen-Welt C, die weder der Lebenswelt A noch der Lebenswelt B vollkommen entspricht. Weil es sich um ein Handlungsfeld, um einen Prozess handelt, ist eine Interkultur also gerade nicht statisch als Synthese von A und B im Sinne eines 50:50 oder anderswie gewichteten Verhältnisses zu denken. Vielmehr kann in dieser Begegnung [...] eine vollständig neue Qualität, eine Synergie, entstehen, die für sich weder A noch B erzielt hätten[18].

상호문화의 존재는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에 전적으로 좌우된다. [...] 상호문화는 끊임없이 새롭게 생성되는데, 그것도 '제3의 것'이란 의미에서이다. 즉, 상호문화는 생활세계 A와도 생활세계 B와도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사이의 세계 C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행동영역, 즉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호문화는 50대 50 또는 다른 비율로 이루어진 A와 B의 정적인 통합으로 생각될 수 없다. 오히려 이런 만남 속에서 [...] 완전히 새로운 특성, 즉 A도 B도 달성하지 못할 시너지(협력 작용)가 생겨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은 서로 상반된 교육학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두 교육 모두는 실제로 인종적·문화적 다원화에 직면한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제시된 교육학적 접근 방법이다.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은 다양한 인종적·종교적·이념적·언어적·문화적 배경을 지닌 다문화사회에서 자신과 다른 문화권의 타자에 대한 차별,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그들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감수성과 태도를 배양시키고, 서로의 고유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의식을 바탕으로 세계시민적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와 '상호문화'의 개념적 구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문화교육과 상호문화교육에도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구성원들이 개별 문화의 고유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즉, 다문화교육은 인종이나 민족의 다양성은 물론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개개의 문화가 동등한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하며, 다른 문화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법이다[9][10]. 한편 상호문화교육의 목적은 다문화사회의 서로 다른 문화집단들 (또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개인들)이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과 연대감을 끌어내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즉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접촉과 교류 및 상호작용을 강조하여, 문화 갈등이 발생할 시 상황에 맞춰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문화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학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문화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행위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학적 접근이다[19].

다문화교육은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양성의 공존에 가치를 두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다문화교육의 초점이 여러 문화들에 대한 이해에 맞춰진다. 상호문화교육은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문화들 간의 만남과 교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과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행동 역량을 키워 공생에 가치를 두는 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호문화교육의 초점은 문화들 (또는 다른 문화권의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공통의 합일점을 찾는 데 맞춰진다.

3.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의 효율성

상호문화교육의 주요 목표인 타인종과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화의 상호교류와 상호작용, 문화갈등의 해결능력, 합의 도출능력 등은 인지적 학습을 통한 지식의 증가만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 상호문화교육이 추구하는 소기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인지적 학습과 더불어 정의적 학습을 통해 교수-학습 내용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가능할 것이다[20].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입장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러나 그런 종류의 교수-학습 방법은 현실적으로 시간과 비용의 측면에서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직접 경험을 기반으로 둔 교수-학습 방법을 대신할 수 있는 교수-학습 매체와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겠다.

시·공간과 정보의 압축혁명을 몰고 온 디지털 정보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 그리고 인류문명에 패러다임의 전환(paradigm shift)을 가져온 디지털혁명(digital revolution)은 21세기를 지식·정보화시대라고도 불리게 만들었다[21]. 디지털기술의 발달에 근거한 입체적, 통합적,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은 오늘날을 사는 현대인의 인식 과정과 방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22]. 특히 디지털 영상매체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현저한 변화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교육 분야에도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영상매체(digital image media)는 “인간의 시각 욕구충족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감각기관들도 동원하여 다각적이고 공감적인 교류를 실현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의사소통 매체”[22]로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 효율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디지털 영상매체에 대한 현대인의 의존성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의 성장세대는 ‘아날로그 신호에 기반을 둔 추상적인 문자매체’보다는 ‘디지털 신호에 기반을 둔 구체적인 영상매체’를 더 선호한다[23]. 따라서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여러 연구자들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수업이 문자 위주의 텍스트에만 의존하는 수업보다 학습자들에게 흥미를 더 유발하고, 집중도를 더 높이며, 수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더 많이 주고, 보다 폭 넓은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5][20][22][24-28]. 이것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사회에 맞는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영상매체의 지배성과 선호도 그리고 상호문화교육에서 정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의 필요성과 강조를 감안한다면,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의 개발은 다문화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갈등을 극복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영화, 애니메이션, TV 드라마 등은 현대인에게 가장 대중적이며 가장 선호되는 서사텍스트(narrative text)에 속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서사텍스트를 활용한 교수-학습 프로그램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을 최소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교육시설에서 모든 것을 직접 경험 할 수 없는 학습자들에게 간접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교수-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영상매체의 활용성은 상호문화교육의 교수-학습 프로그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이다. 상호문화교육의 실천적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위한 디지털 영상매체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내 연구가 속속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들 연구들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나, 체계적인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5][20][22][23][28-32].

상호문화교육은 학습자에게 타문화를 단순히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서, 타자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책임의식과 그에 합당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상호문화적 감수성(intercultural sensitivity)을 훈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영상매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실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재현하면서도, 정서적 측면과 심미적 측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33].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디지털 영상매체는 정의적 특성과 인지적 그리고 행동적 특성을 통합시킨 하나의 유기적 교수-학습매체로 활용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영상매체가 상호문화적 감수성 훈련을 위한 효과적인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매체 중의 하나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야 할 것이다.

4.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디지털 영상매체가 훌륭한 교수-학습 매체임을 보이고자 한다. 설문조사의 대상은 2012년 1학기 서강대학교, 항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충주 소재)에서 독일어 관련 교양과목을 수강한 재학생 157명과 일반 성인 89명이다.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수업이 시작된 15분 후에 설문을 조사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후 실시하였다. 한편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경우, 대학생 4명의 도움을 받아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그 자리에서 회수하는 방식을 취했다.

4.2 연구내용

설문지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설문에 응답하는 데 걸린 시간은 채 5분이 되지 않았다. 설문 내용은 (1) 다인종·다문화에 대한 인지도, (2) 한국사회를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바라보는 인식도, (3)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7)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 (8)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교류 여부, (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이다.

5. 분석

5.1 다인종·다문화사회 인지도

대학생과 일반 성인의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지도를 알기 위해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1]과 같다.

[표 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지도는 ‘매우 잘 아는 편’이 1.3%, ‘대체로 아는 편’이 62.4%로 누적 퍼센트는 63.7%이며, 일반 성인의 인지도는 ‘매우 잘 아는 편’이 2.2%, ‘대체로 아는 편’이 70.8%로 누적 퍼센트는 73.0%이다. 본 설문조사에 의하면 다

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 성인들의 인지도가 대학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에게 있어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는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1] 다인종·다문화사회 인지도

[Table 1] Perceptual Levels of Multiracial-multi-cultural Society

설문내용	다인종·다문화사회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잘 아는 편	2	2	1.3	2.2	1.3	2.2	1.3	2.2
대체로 아는 편	98	63	62.4	70.8	62.4	70.8	63.7	73.0
대체로 모르는 편	57	24	36.3	27.0	36.3	27.0	100	100
전혀 모르는 편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5.2 한국사회를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바라보는 인식도

설문 대상자들이 전통적인 순혈주의를 여전히 고수하고 낯섬과 타자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한국이 단일문화·민족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사회를 단일문화·민족 국가로 바라보는 인식도

[Table 2] Awareness of Korean Society as Monocultural-Monoracial Nation

설문내용	한국이 단일문화·민족 국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그렇다	5	18	3.2	20.2	3.2	20.2	3.2	20.2
대체로 그렇다	85	38	54.1	42.7	54.1	42.7	57.3	62.9
대체로 그렇지 않다	43	23	27.4	25.8	27.4	25.8	84.7	88.7
전혀 그렇지 않다	24	10	15.3	12.4	15.3	12.4	100	100
기타	0	0	0	0	0	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2]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한국사회를 단일문화·민족 국가로 바라보는 대학생들의 인식도는 ‘매우 그렇다’가 3.2%, ‘대체로 그렇다’가 54.1%로 누적 퍼센트는 57.3%이며, 일반 성인의 인식도는 ‘매우 그렇다’가 20.2%, ‘대체로 그렇다’가 42.7%로 누적 퍼센트는 62.9%이다. 대학생과 일반 성인 설문대상자들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한국사회를 순혈주의에 바탕을 둔 단일문화·민족 국가라고

생각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대학생의 경우 3.2%에 지나지 않으나, 일반 성인의 20%이상이 한국사회를 철저한 단일문화·민족국가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여전히 순혈주의의 신화가 깊이 내재하고 있으며, 다른 인종과 문화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5.3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한국사회의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관련하여 설문대상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한국의 다인종·다문화사회화

[Table 3] Multiracial-multi-cultural Socialization of Korea

설문내용	우리나라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그렇다	44	37	28.0	41.6	28.0	41.6	28.0	41.6
대체로 그렇다	99	45	63.1	50.6	63.1	50.6	91.1	92.2
대체로 그렇지 않다	13	7	8.3	7.8	8.3	7.0	99.4	100
전혀 그렇지 않다	1	0	0.6	0	0.6	0	100	
기타	0	0	0	0	0	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3]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90%이상의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은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발전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한국사회를 단일문화·민족 국가로 바라보는 인식도에 비추어 보면 어떤 면에서 놀랐다. 설문 대상자의 약 60%는 한국사회가 여전히 단일문화·민족 국가라고 여기고 있으며, 일반 성인의 20%이상은 한국사회가 순혈주의와 단일문화에 바탕을 둔 철저한 단일문화·민족 국가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 대상자의 대부분은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화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마치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5.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설문대상자들이 다문화현상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어디에서 얻는지를 알기 위해, ‘다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Table 4] Resources of Information Acquisition about Mutliculture

설문내용	다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어디에서 얻으셨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텔레비전의 뉴스보도, 다큐멘터리, 영화, TV 드라마 등 디지털 영상매체	81	45	51.6	50.6	51.6	50.6
신문, 잡지 등 인쇄 대중매체	65	30	41.4	33.7	41.4	33.7
다문화 관련 서적	1	6	0.6	6.7	0.6	6.7
타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직접적인 교류	10	7	6.4	7.9	6.4	7.9
기타	0	1	0.0	1.1	0.0	1.1
합계	157	89	100.0	100.0	100.0	100.0

[표 4]에 따르면, 50%이상의 대학생과 일반 성인이 텔레비전의 뉴스보도, 다큐멘터리, 영화, TV 드라마 등 디지털 영상매체를 통해 다문화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다. 한편 대학생의 41.4%와 일반 성인의 33.7%에게 있어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대중매체가 타인종-타민족-타문화에 관한 정보의 원천이다. 대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 다문화현상에 관련된 정보원으로 활자매체보다는 영상매체에 더 의존하고 있다. 또한 적잖은 비율의 설문응답자들이 타문화적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다문화 관련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서 타문화권의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들과의 교류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겠다.

5.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지닌 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여부를 알기 위해,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Table 5] Necessity of Intercultural Education

설문내용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그렇다	66	57	42.1	64.0	42.0	64.0	42.1	64
대체로 그렇다	90	32	57.3	36.0	57.3	36.0	99.4	1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	0	0.6	0	0.6	0	100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기타	0	0	0	0	0	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5]에 따르면,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대학생은 99.4%, 일반 성인은 100%가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두 집단 모두에게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과 비교하여 일반 성인이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훨씬 더 강조한다(64.0% vs. 42.1%).

5.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여기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 실제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은 주류문화집단과 비주류문화집단 모두를 포함해야 하나, 설문응답자들이 상호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어떤 집단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나누어 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Table 6] Objects and Content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a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설문내용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상호문화교육의 내용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를 대상으로 한 주류문화집단의 언어교육	9	4	5.7	4.5	5.7	4.5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를 대상으로 한 주류문화집단의 문화교육	39	24	24.8	27.0	24.8	27.0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를 대상으로 한 주류문화집단의 실생활교육	15	14	9.6	15.7	9.6	15.7
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교육 (예: 반편견교육, 관용교육, 평등교육, 인권교육 등)	81	39	51.6	43.8	51.8	43.8
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의 문화교육	13	8	8.3	9.0	8.3	9.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51.6%와 일반 성인의 43.8%는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필수내용으로 한국인, 즉 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의 내용, 예를 들어 반편견교육(non-biased education), 관용교육(tolerance education), 평등교육, 인권교육 등을 들었다. 그 뒤를 따르는 것으로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문화교육과 실생활

교육이 있다. 또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타문화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자의 비율도 낮은 편은 아니었다. 한편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을 선택한 설문 응답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설문조사의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응답자들은 언어교육 보다 문화교육에 중요성을 더 두고 있다[34].

한국적 다문화상황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관련하여 59.8%의 대학생과 52.8%의 일반 성인이 주류문화집단으로 꼽고 있다. 이는 다인종·다문화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주류문화집단에 속하는 한국인의 의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5.7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

타문화권 사람에 대한 편견의 정도를 알기 위해,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
 [Table 7] Prejudice about Those who Have Other Cultural Backgrounds

설문내용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그렇다	2	2	1.3	2.2	1.3	2.2	1.3	2.2
대체로 그렇다	63	18	40.1	20.2	40.1	20.2	41.4	22.4
대체로 그렇지 않다	62	49	39.5	55.1	39.5	55.1	80.9	77.5
전혀 그렇지 않다	30	17	19.1	19.1	19.1	19.1	100	96.6
기타	0	3	0	3.4	0	3.4		10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의외였다. 물론 이 설문조사로 일반화시키기는 무리가 있겠지만,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를 묻는 질문에서 대학생들이 일반 성인들에 비해 더 심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1.4%의 대학생이 비주류문화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일반 성인의 22.4%만이 다른 문화권 구성원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학생의 경우 58.6%가 그리고 일반 성인의 경우 74.2%가 타문화권 출신 사람에 대한 편견 내지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조사 결과는 대학생에게 반편견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35].

5.8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교류 여부

타문화권 구성원과의 개인적 교류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 교류를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교류 여부

[Table 8] Mutual Exchange with Those who have Other Cultural Backgrounds

설문내용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 교류를 직접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많다	1	3	0.6	3.4	0.6	3.4	0.6	3.4
대체로 많다	9	14	5.7	15.7	5.7	15.7	6.3	19.1
대체로 적다	70	40	44.6	44.9	44.6	44.9	50.9	64.0
전혀 없다	77	31	49.1	34.9	49.1	34.9	100	98.9
기타	0	1	0	1.1	0	1.1		10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관련하여 6.3%의 대학생 그리고 19.1%의 일반 성인이 긍정적인 대답을 했다. 한편 타문화권 구성원들과 전혀 교류한 적이 없는 대학생이 거의 절반에 가까웠으며,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1/3이상 되었다. 또한 제한적인 교류를 가졌던 대학생의 비율은 44.6%, 일반 성인의 비율은 44.9%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93.7% 그리고 일반 성인의 79.8%가 비주류문화집단과의 교류와 관련하여 부정의 응답을 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에서 펴낸 「2012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외국인의 총수가 22,185,474명에 달한다[9].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12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은 2.84%이다. 체류외국인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중국이 48.3%(698,444명)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미국 9%(130,562명), 베트남 8.3%(120,254명), 일본 4%(57,174명), 타이 3.2%(45,945명), 필리핀 2.9%(42,219명) 순이다(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2012년, 279 참고). 국내 체류외국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들이 결혼이주여성과 이주노동자이다. 결혼이주여성은 농어촌 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는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아직까지는 주류문화집단들과 부대끼는 경우가 많지 않다. 이런 이유로 타문화 배경을 지닌 주체들과의 교류가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5.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어떤 교수-학습 매체가 효율적인지를 알기 위해,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또한 설문 응답에서 정

규교육과정과 비정규교육과정을 구분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Table 9]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dia for Intercultural Education

설문내용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정규교육과정에서 활용한 활자매체	9	9	5.7	10.1	5.7	10.1
정규교육과정에서 활용한 시청각매체	119	61	75.8	68.5	75.8	68.5
비정규교육과정에서 활용한 활자매체	2	0	1.3	0	1.3	0
비정규교육과정에서 활용한 시청각매체	27	19	17.2	21.4	17.2	21.4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과 일반 성인 모두에게 있어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로 시청각매체가 활자매체보다 훨씬 더 큰 선호도를 보인다. 93%의 대학생 그리고 89.9%의 일반 성인이 시청각매체를 선택했다. 한편 81.6%의 대학생과 79.6%의 일반 성인은 비정규교육과정보다는 정규교육과정에서 상호문화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대학생 75.8%와 성인 68.5%). 그 뒤를 따른 것은 비정규교육과정의 테두리에서 시청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이었다. 비정규교육과정에서 활자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을 선택한 응답자의 수는 적었다.

5.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다인종·다민족·다종교·다언어·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은 전통적인 교육관의 전환과 새로운 교육적 실천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학습자 중심의 상호문화교육 내용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 전문교사를 육성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상호문화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란 설문이 행해졌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설문응답자들은 상호문화교육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응답을 했다. 일반 성인은 상호문화교육 전문가의 육성에 관련하여 절대적인 긍정의 답을 내놓았으며, 92.4%의 대학생들은 상호문화교육 전문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Table 10] Necessity of Fostering Expert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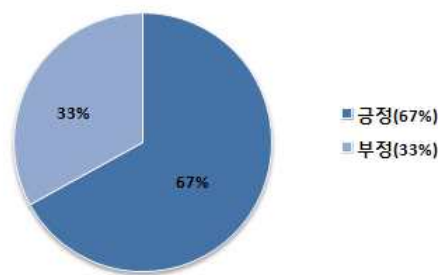
설문내용	상호문화교육 전문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대학생	성인
매우 그렇다	61	51	38.9	57.3	38.9	57.3	38.9	57.3
대체로 그렇다	84	38	53.5	42.7	53.5	42.7	92.4	100
대체로 그렇지 않다	11	0	7.0	0	7.0	0	99.4	
전혀 그렇지 않다	0	0	0	0	0	0	99.4	
기타	1	0	0.6	0	0.6	0	100	
합계	157	89	100	100	100	100		

5 분석결과

총 246명(대학생 157명과 일반 성인 89명)을 대상으로 (1) 다인종·다문화에 관한 인지도, (2) 한국 사회를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바라보는 인식도, (3)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7)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 (8)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교류 여부, (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관련하여 총 10문항의 설문을 행하였다. 이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의 인지도를 묻는 설문에서 총 설문응답자 246명 중 67%에 해당하는 165명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알고 있다는 긍정의 대답을 했다. 반면 33%에 해당하는 81명이 다문화사회에 대해 모른다는 부정의 대답을 했다[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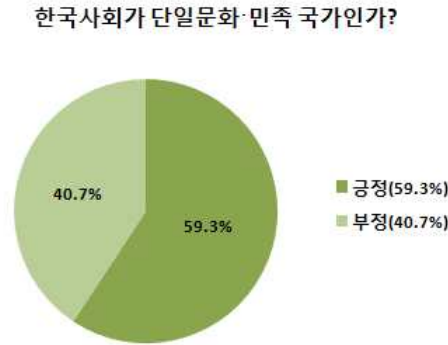
다문화사회 인지도



[그림 1] 다문화사회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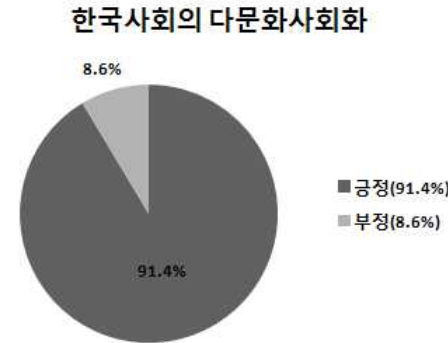
[Fig. 1] Perceptual Levels of Multi-cultural Society

둘째, 한국사회를 단일문화·단일민족 국가로 생각하는 지를 묻는 설문에서 총 설문응답자 246명 중 59.3%에 해당하는 146명은 긍정의 대답을 했다 반면 40.4%에 해당하는 100명은 한국사회가 단일문화·민족 국가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그림 2].



[그림 2] 한국사회를 단일민족국가로 바라보는 인식도
 [Fig. 2] Awareness of Korean Society as Mono-cultural-Mono-racial N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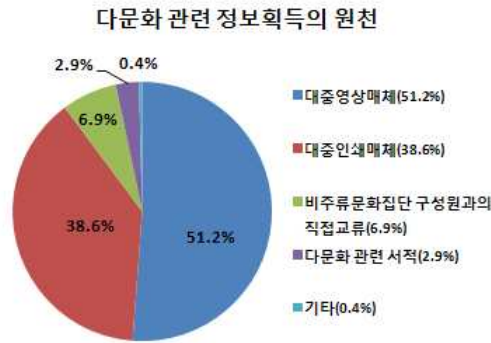
셋째,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설문에서 총 설문응답자 246명 중 91.4%에 해당하는 225명은 긍정의 대답을 했다. 반면 8.6%에 해당하는 21명은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그림 3].



[그림 3] 한국사회의 다문화사회화
 [Fig. 3] Multi-racial-Multi-cultural Socialization of Korea

넷째, 다문화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는지에 관한 설문에 대해서 총 설문응답자의 51.2%에 해당하는 126명은 텔레비전의 뉴스보도, 다큐멘터리, 영화, TV 드라마 등 디지털 영상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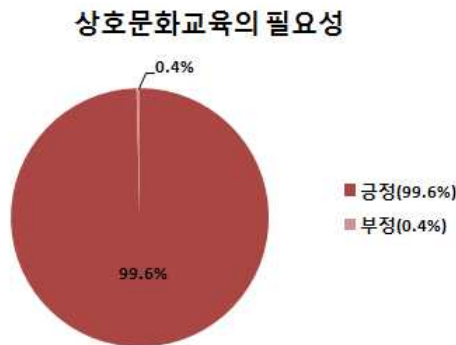
체를 꼽았다. 그 뒤를 이어 38.6%에 해당하는 94명은 신문, 잡지 등 인쇄 대중매체를, 6.9%에 해당하는 17명이 비주류문화집단 구성원과의 직접 교류를, 2.9%에 해당하는 7명이 다문화 관련 서적을 선택했다. 설문응답자들 중 1명은 기타(없음)이라고 대답했다[그림 4].



[그림 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Fig. 4] Resources of Information Acquisition about Multi-culture

다섯째, 다인종·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총 246명의 설문응답자 중 1명을 제외한 245명이 긍정의 대답을 했다[그림 5]. 따라서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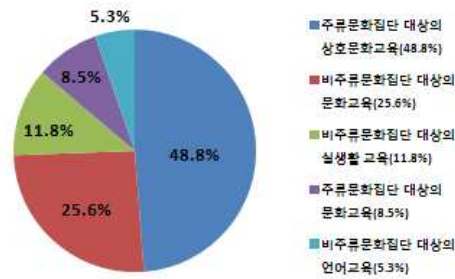
[그림 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Fig. 5] Necessity of Intercultural Education

여섯째,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을 묻는 설문에서 총 246명의 설문대상자 중 48.8%에 해당하는 120명은 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호문화교육을 선택했다.

그 뒤를 이어 25.6%에 해당하는 63명이 비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을, 11.8%에 해당하는 29명이 비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실생활교육을, 8.5%에 해당하는 21명이 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육을 꼽았다. 설문응답 중 가장 작은 비율(5.3%)을 차지한 것은 비주류문화집단을 대상으로 한 주류문화집단의 언어교육이었다[그림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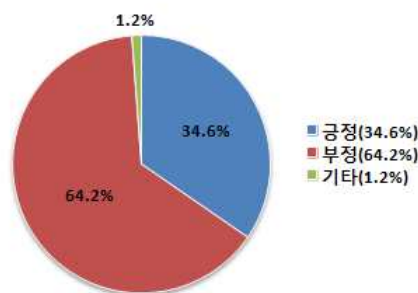


[그림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Fig. 6] Objects and Contents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a Korean Multi-cultural Society

일곱째, 비주류문화집단에 대한 편견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총 246명의 설문대상자 중 64.2%에 해당하는 158명은 편견이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34.6%에 해당하는 85명은 비주류문화집단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3명의 응답자는 기타(모르겠음)라고 대답했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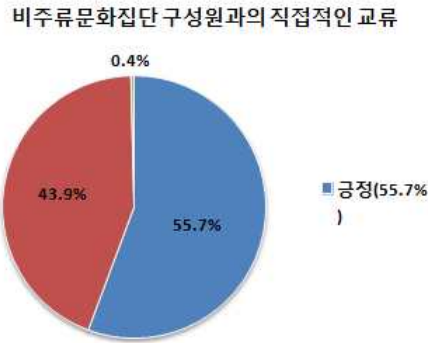
비주류문화집단에 대한 편견



[그림 7] 비주류문화집단에 대한 편견

[Fig. 7] Prejudice about Those who Have Other Cultural Backgroun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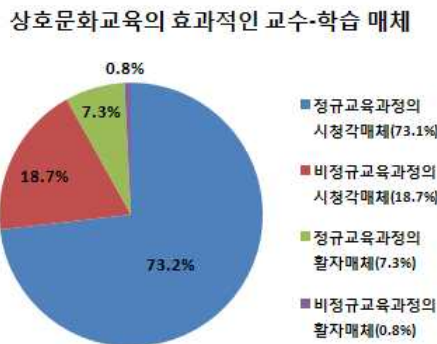
여덟째, 비주류문화집단 구성원과 직접 교류해 본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서 총 246명의 설문대상자 중 55.7%에 해당하는 137명이 긍정의 답을 했다. 반면 43.9%에 해당하는 108명은 비주류문화집단 구성원과 교류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그림 8).



[그림 8] 비주류문화집단 구성원과의 직접적인 교류

[Fig. 8] Mutual Exchange with Those who have Other Cultural Backgrounds

아홉째,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와 관련된 설문에서 총 246명의 설문대상자 중 73.2%에 해당하는 180명은 정규교육과정의 시청각매체라고 꼽았다. 그 뒤를 이어 18.7%에 해당하는 46명이 비정규교육과정의 시청각매체를, 7.3%에 해당하는 18명이 정규교육과정의 활자매체를, 0.8%에 해당하는 2명이 비정규교육과정의 활자매체를 선택했다(그림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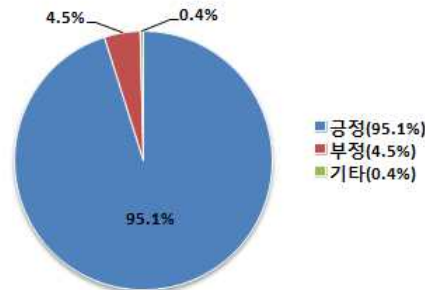
[그림 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Fig. 9] Effective Teaching-Learning Media for Intercultural Education

열째,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에서 총 246명의 설문응답자 중 95.1%에

해당하는 234명이 긍정의 답을 했다. 반면 4.5%에 해당하는 11명은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불필요성을 선택했다(그림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그림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

[Fig. 10] Necessity of Fostering Experts for Intercultural Education

6. 나아가는 말

대한민국은 자본과 경제의 세계화, 3D 업종의 기피현상, 노령화와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해 외국노동자의 이주를 불러왔다. 한편 산업화와 농·어촌 지역에서의 이탈현상 그리고 도시생활에 대한 선호로 인해 농·어촌 남성들은 결혼문제에 심각하게 직면하게 되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결혼이주자의 유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노동이주자와 결혼이주자가 본격적으로 유입된 21세기 초반 이래로 한국은 다인종·다문화사회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의 사회적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단일민족·문화 사회에서 다인종·다문화사회로의 빠른 전환과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상황으로의 전개는 문화적 긴장과 갈등, 사회구성원들의 정체성 혼란과 문화와 문화 간의 소통 부재를 유발시켰다. 이는 낯섬과 타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으로 이어졌다. 이런 사회적·문화적 긴장과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공동체의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달성하고, 모든 사회집단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공생할 수 있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위해 제안된 교육학적 접근이 바로 문화와 문화 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상호문화교육이다.

캐나다의 미디어 이론가 마셜 맥루한(Marshall McLuhan, 1911-1980)은 1964년에 출간된 『미디어의 이해: 인간의 확장(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에서 오늘날 회자되는 “매체는 메시지이다(The medium is the message).”[36]란 표현을 말한다. 그의 지적처럼 매체는 인간의 의식

구조와 의사소통 양식은 물론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를 결정짓는다. 이는 특히 20세기 말 디지털 기술혁명으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은 지식·정보화시대에는 문자매체를 중심으로 한 아날로그 문명에서 영상매체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 문명으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매체 문명의 전환은 교육현장에서도 예외는 될 수 없다. 특히 많은 학습주체가 “아날로그 신호로 표현되는 문자에 친화적인 자아보다는 디지털 신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상에 보다 친밀한 자아”[37]이기 때문이다. 이에 발맞춰 상호문화교육을 실시할 때 교수·학습 수단으로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하려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부상하고 있다.

서두에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는 ‘상업영화를 활용한 대학교에서의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이란 후속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의 성격을 띤다. 다시 말해 본 연구는 대표적인 디지털 영상매체 중의 하나인 영화를 활용하여 대학생을 위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 앞서 행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과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1) 다인종·다문화에 관한 인지도, (2) 한국사회를 다인종·다문화사회로 바라보는 인식도, (3) 한국의 다문화사회화, (4) 다문화 관련 정보획득의 원천, (5) 상호문화교육의 필요성, (6) 한국적 다문화사회에서 상호문화교육의 대상과 교육내용, (7)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에 대한 편견도, (8) 타문화권 배경을 지닌 주체와의 교류 여부, (9) 상호문화교육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매체, (10) 상호문화교육 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가 시행되어 그 결과가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자들은 디지털 영상매체를 활용한 상호문화교육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ferences

- [1]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Korea Immigration Service Statistics 2012, Gwacheon, (2013).
- [2] J. -H. Kim, "Present Education State of Marriage-Migrant Women und Female Migrant Workers: Reshaping Lifelong Education", *Journal of Lifelong Education*, vol. 17, no. 1, (2011), pp. 25-51.
- [3] Statistics Korea, "Population Projections for Korea: 2010-2060", (2011).
- [4] C. Ferguso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Report Commissioned by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UNDESA) for the Expert Group Meeting on Promoting Social Integration", Helsinki, Finland, 8-10 July 2008, Background Paper for Discussion, (2008).
- [5] T. -W. Kim, "Theoretical Exploration of the European Interculturalism as a Paradigm for Social Integration", *European Society and Culture*, vol. 9, (2012), pp. 179-213.
- [6] http://en.wikipedia.org/wiki/Social_integration, Retrieved: (2014) January 23.
- [7] H. M. Kim, "Hintergrund und früherer Entwicklungsprozess der interkulturellen Erziehung in Deutschland", *Zeitschrift für Deutsche Sprache und Literatur*, vol. 47, (2010), pp. 359-379.
- [8] Y. -K. Tschong, "Interkulturelle Erziehung im globalisierenden Zeitalter",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2, no. 1, (2007), pp. 257-272.
- [9] I. -S. Chang, "Implication for the Reform of Korean Teacher Education Based on Multicultural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1, no. 3, (2003), pp. 409-431.
- [10] I. -S. Chang, "Multicultural Education in America and Curriculum",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4, no. 4, (2006), pp. 27-53.
- [11] L. Porcher, "Glanz und Elend des Interkulturellen?", Manfred Hohmann & Hans H. Reich (Eds.), *Ein Europa für Mehrheiten und Minderheiten: Diskussionen um interkulturelle Erziehung*, Münster & New York, (1989), pp. 33-46.
- [12] H. M. Kim, S. G. Oh and M. S. Lee, "Comparative Analysis of Multi-Cultural Situations between Korea and Germany",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Letters*, Proceedings International Workshop, Game and Graphics 2013, December 11-13, 2013, Jeju Island, Korea, vol. 39, (2013), pp. 54-61.
- [13] H. M. Kim, S. G. Oh and M. S. Lee, "Rethinking Culture and Multi-Cultural Society in the Age of Globalization: A Report in Consideration of Korean and German Multiculturalism", *Information. An International Interdisciplinary Journal*, vol. 17, no. 7(B), (2014), pp. 3299-3315.
- [14] K. -S. Chung, "Interkulturelle Kompetenz aus der Sicht der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 vol. 16, no. 3, (2011), pp. 133-149.
- [15] J. Y. Hong, "Intercultural Education in Europe", *The Journal of Global Cultural Contents*, vol. 7, (2011), pp. 314-317.
- [16] Y. -K. Tschong, "Interkulturelle Erziehung aus der Sicht der Allgemeinen Pädagogik", *The Korean Journal*

- of Philosophy of Education, vol. 37, (2006), pp. 29-42.
- [17] Langenscheidts Großes Schulwörterbuch, Lateinisch-Deutsch, Bearbeitet von Dr. Erich Pertsch auf der Grundlage des Menge-Güthling, Berlin, München, Wien, Zürich and New York, (2001).
- [18] J. Bolten, "Interkulturelle Kompetenz", Erfurt, (2007).
- [19] G. Verbunt, "La Société Interculturelle: Vivre la diversité humaine", Paris, (2011).
- [20] K. -J. Han, "The Use of Cinema for the Teaching of Multiculture in Social Studies", *Study of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13, no. 3, (2006), pp. 147-166.
- [21]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Revolution, Retrieved: (2014) January 29.
- [22] Y. -K. Tschong, "Image Culture and Education in the Age of Globalization", Seoul, (2004).
- [23] Y. -K. Tschong, "Spielfilm und Pädagogik im Zeitalter der digitalen Kulturindustrie", *Anthropology of Education*, vol. 6, no. 2, (2003), pp. 205-224.
- [24] J. W. J. Beetjes and T. H. A. Van der Voort, "Television's Impact on Children's Reading Skills: A Review of Research", *Reading Research Quarterly*, vol. 23, no 4, (1988), pp. 389-413.
- [25] R. Heinrich, M. Molenda and J. Russell, "Instructional Media and the New Technologies of Instruction", 4th Edition, New York, (1993).
- [26] Y. -K. Kim and Y. -T. Han, "Multicultural Teaching and Learning through Movies", Center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Kyeonggi-do (Ed.), *Theory and Practice of Multicultural Education*, Paju, (2009), pp. 239-278.
- [27] J. Lee, "Zur Entwicklung eines Unterrichtsmodells mit Film als Möglichkeit der angewandten Geisteswissenschaft", *Koreanische Zeitschrift für Deutschunterricht*, vol. 50, (2011), pp. 387-411.
- [28] Yeon-Ju, Seo, "A Study on Recognizing Multi-Culture in Korean Culture. Focusing on Human Right Movies",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vol. 47, (2009), pp. 213-234.
- [29] S. -H. Choi, "Deutsche Filme mit multikulturellen Aspekten. Angst essen Seele auf und Gegen der Wand", *Hesse-Forschung*, (2011), pp. 235-254.
- [30] Y. -T. Han, "Some French and German Movies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at Schools", *Cross-Cultural Studies*, vol. 19, (2010), pp. 205-232.
- [31] S. -K. Lee, "Ein Modell für Kulturunterricht: Akins Spielfilm <Auf der anderen Seite> aus der Perspektive der multikulturellen Diskurse betrachtet", *Kafka-Forschung*, vol. 21, (2009), pp. 177-200.
- [32] S. -S. Suh, "The Pros and Cons of Multimedia-Using English Classes", *STEM Journal*, vol. 8, no. 2, (2007), pp. 153-166.
- [33] D. P. S. Bhawuk and R. Brislin, "The Measurement of Intercultural Sensitivity Using the Concept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vol. 16, (1992), pp. 413-436.
- [34] K. Jaspers, "Der philosophische Glaube angesichts der Offenbarung", München, (1962).
- [35] S. Byun, "A Study on the Tolerance as the Cardinal Virtue of the Moral Education in the Multi-cultural and Global Age", *Journal of Moral & Ethics Education*, vol. 31, (2010), pp. 133-152.

[36] M. McLuhan, "Understanding Media: The Extensions of Man", McGraw Hill, New York, (1964).

[37] J. -H. Lee, "The Ethics Educational Implication of an Image Learning Media in Moral Educa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5, no. 1, (2004), pp. 197-219.